



미 증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하락 마감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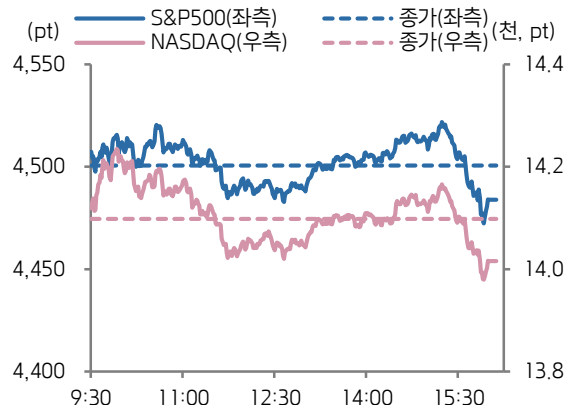
7 일 (월) 미국 증시는 금리 상승 부담에도 리오프닝 기대감, 개별 기업 실적 기대감 등으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이후 러시아와 서방국가간 지정학적 긴장감 재고조 등이 차익실현 압력을 자극하며 하락세로 마감(다우 0%, S&P500 -0.37%, 나스닥 -0.58%, 러셀 2000 +0.51%).

전일 급등한 미국 장기물 금리가 다소 진정되며 S&P500 은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지속적인 부담 요인들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등락. 금주 미국 1 월 CPI 지표에 앞둔 경계감, 미국 고용보고서 여파로 재부각된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감,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이 있었음. 결국 지수는 개별 기업 실적 등 소식들에 따라 -0.5~+0.5% 사이에서 등락 이후 0.4% 하락 마감. 전일 고용보고서 여파로 급등한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감 부각에 다소 진정됨. 프랑스-러시아, 미국-독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발언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위축.

업종별로 에너지(+1.3%), 금융(+0.3%), 필수소비재(+0.1%) 등이 상승한 반면, 통신(-2.2%), IT(-0.7%), 소재(-0.4%) 등은 하락. 종목별로 유나이티드(+3.8%), 보잉(+2.7%), 카니발(+7.8%) 등 여행 관련주들은 리오프닝 기대감에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0.02%)는 엔비디아(+1.7%) 상승, 퀄컴(-2.4%) 하락 등 혼조된 흐름 속에서 소폭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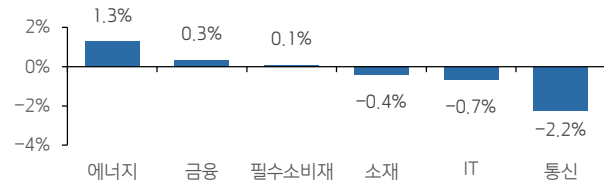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온세미컨덕터(+8.4%)와 타이슨푸즈(+12.2%)는 주가 급등한 반면, 하스브로(-1.0%)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EPS 1.21 달러 vs 예상 0.88 달러)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 한편 프론티어(+3.5%)와 스피리트(+17.2%) 에어라인은 합병 소식에 각각 급등했고 펠로튼(+20.9%)는 아마존과 나이키 등 기업들의 인수설에 의해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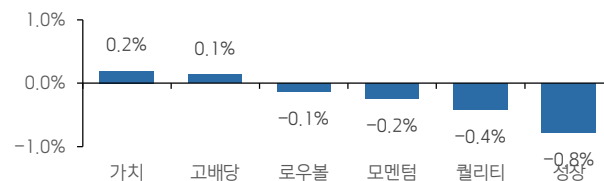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83.87	-0.37%	USD/KRW	1,200.52	+0.29%
NASDAQ	14,015.67	-0.58%	달러 지수	95.44	-0.05%
다우	35,091.13	+0.00%	EUR/USD	1.14	-0.1%
VIX	22.86	-1.55%	USD/CNH	6.36	-0.02%
러셀 2000	2,012.60	+0.51%	USD/JPY	115.10	-0.14%
필라. 반도체	3,452.33	-0.0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192.95	-0.14%	국고채 3년	2.240	+5.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637	+3.5bp
Eurostoxx50	4,120.56	+0.83%	미국 국채 2년	1.294	-1.6bp
MSCI 전세계 지수	718.76	+0.36%	미국 국채 10년	1.921	+1.3bp
MSCI DM 지수	3,061.46	+0.2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21.10	+0.89%	WTI	91.51	-0.87%
MSCI 한국 ETF	72.96	+0.33%	금	1822.1	+0.7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9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7.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중 전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지정학적인 이슈 관련 뉴스 플로우
2. LG 화학, KB 금융 등 국내 주요 화학 및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3. LG 에너지솔루션발 수급 왜곡 현상 여진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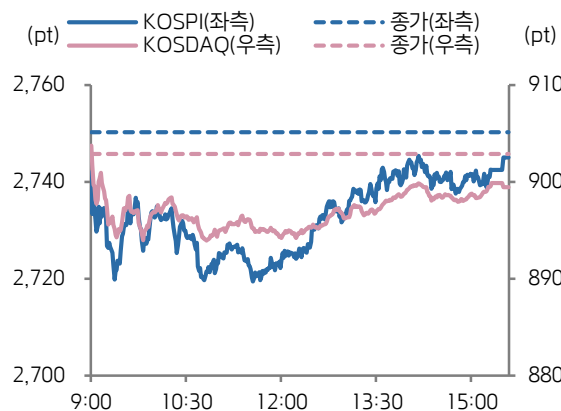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 지정학적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사력의 70%를 집결시켰다고 분석하면서 침공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상황.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독일에서도 7 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러시아의 침공 시 제제를 가할 것이라는 동의를 표명하는 등 7 일 장중 관련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미국 증시의 상승폭 반납을 초래. 다만,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 모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시장 참여자들 역시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물론 지정학적인 긴장감은 상당기간 시장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실적시즌이 중반부에 진입한 만큼 기업 실적 변화에 주가가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또한 미국 등 주요국들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는 피크아웃한 가운데 7 일 호주 정부는 21 일부터 백신접종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내 정부에서도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시 일상 회복 전환을 시사하는 등 주요국 증시에서는 리오프닝 테마에 시장의 관심이 재차 집중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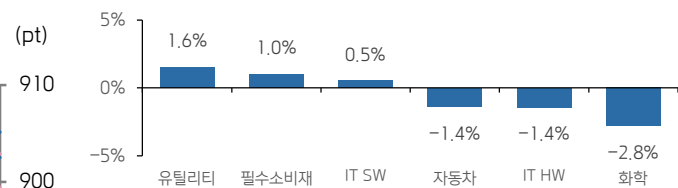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연준과 관련한 단기적인 매크로 이벤트 부재 속 주요 화학 및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역외 원/달러 환율이 1,200 선을 하회하고 있는 만큼 환율 측면에서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해볼 만한 요인. 다만, 1 월 말 상장한 LG 에너지솔루션이 금주 후반 2 차전지 ETF 편입, 14 일 MSCI 지수 조기 편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1 월에 비해 크지는 않겠으나) 이를 둘러싼 수급 왜곡 현상의 여진은 해당 기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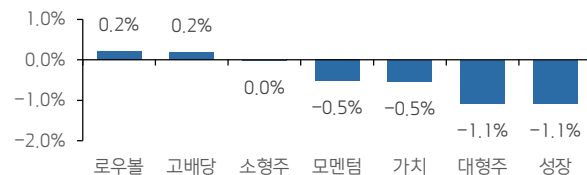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을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